

# 장례식 4일장 늘어난 까닭은

## 광주 화장률 92.3%에 환절기 사망 증가...화장터 못 구해 유족들 발동동

“화장(火葬)터를 구할 수가 없네요. 다른 지역까지 옮겨 비싼 돈 들여 화장할 수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4일장으로 치르게 됐네요”

지난달 28일 부친상을 당한 A(53)씨는 빈소를 차리고 3일장을 치르려다 4일장으로 바꿨다. 화장할 곳을 찾지 못해서다.

A씨 뿐 아니라 최근 가족들 의지와 상관없이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화장률이 10명 중 9명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화장할 곳은 극히 부족한데다, 환절기를 맞아 고령의 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화장률은 2020년 기준으로 92.3%. 2019년 89.3%에 걸췌 3% 늘었다. 사망자 10명 중 9명이 매장 아닌 화장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2010년) 61.3% 수준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급속하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20년 광주지역 사망자는 7785명. 화장률을 고려하면 7100명이 넘는 사망자 가족들이 화장장을 찾은 것이다.

화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장률은 급증했

### 화장 대세에 바뀐 장례문화

영락공원 가동률 140%로 포화  
목포 등 타지역으로 원정 화장도  
코로나로 문 닫은 화훼업체 늘어  
근조 화환 배달 지연도 잇따라

지만 정작 화장할 공간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광주의 경우 광주도시공사 산하 영락공원 한 곳에서만 운영된다.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화장로가 10기로, 36명을 화장할 수 있다. 여기에 타 지역에서 광주로 화장장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다보니 매일 가동해도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실정이다. 당장, 이날 화장 예약시스템은 이를 뒤인 4일까지 화장 예약이 끝난 상태다. 예약을 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경우 화장이 불가능해 사실상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후 화장장 가동률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도 140%를 넘어서는 등 가동률이 치솟았다.

영락공원 관계자는 “최근 수요가 늘면서 예비 화장로 1기를 추가로 가동하고 있지만 가동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광산구 모 장례식장 관계자는 “환절기에는 고령의 사망자들이 잇따라 화장터 예약이 어렵다보니 목포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 외 목포·순천의 경우 빠듯하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

광주 영락공원의 경우 화장비용 면제 혜택 범위도 넓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공헌자의 화장비용 뿐 아니라 이들 배우자의 화장비용도 면제해준다. 이렇다보니 타지역에서 광주까지 시신을 옮겨와 화장하는 경우도 많다.

코로나 영향 탓에 조문 화환도 수급이 여의치 않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들이 줄면서 문을 닫은 화훼업체들이 많아 국화 수급자체가 힘들어진데다, 전문 배송업체도 코로나로 문을 닫아서다. 이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 2-3시간 내 배달이 가능했던 근조 화환은 하루를 넘겨야 배달되는 실정이다.

회사원 B씨는 “자신이 상을 당해 근조 화환을 주문했는데 다음날이나 배달된다고 했다”면서 “전화를 이곳저곳으로 돌려도 아예 주문 접수를 받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전남 화장률 변화 추이

구 분	사망자수(명)			화장자수(명)			화장률(%)		
	2010년	2019년	2020년	2010년	2019년	2020년	2010년	2019년	2020년
광 주	6,530	7,635	7,785	4,000	6,821	7,185	61.3	89.3	92.3
전 남	16,043	16,787	17,436	7,771	13,826	14,837	48.3	82.4	85.1

<자료:보건복지부>



훼손된 벽보 복구작업 2일 오전 광주시 북구선관위 직원들이 복구 우치로변에 걸려졌다 훼손된 제20대 대선후보들의 벽보를 복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등잔 밑이 어둡네...간 큰 횡령범

### 회삿돈 3억여원 빼돌린 여수 건설사 경리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간 큰 횡령범이 잇따르고 있다. 회사 자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소규모 영세 기업뿐 아니라 상장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 규모가 상당한 기업조차 수십~수백억원을 빼돌릴 때까지 모를 정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여수의 건설사 경리담당자로 근무하면 3억 3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A씨는 무려 154회에 걸쳐 공금을 가로챘지만 회사 측은 오랜 기간 문제를 알지 못했다. A씨는 이같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는 중 다른 기업 경리사원으로 취업한 뒤 빈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쓰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 추가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중고차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중고차 회사 지점장 B(42)씨에 대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이 다니는 중고차 회사 재고·전산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알고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직원 C씨 등과 공모하거나 혼자서 중고차 판매 대금 등 회삿돈 7억5000여 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B씨 등이 수년 간 40차례가 넘도록 판매 대금을 가로채는 동안 회사는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했지만 회사 측은 재판으로 드러난 것 외에 추가 피해가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형량을 높였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도 회사 수급 업무를 맡으면서 받은 거래대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C(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택배노조 65일만에 파업 종료

###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파업 65일째인 2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

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같은 달 25일 대화가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업무에 적극 참여하며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3일 전체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창길 광주전남 지방장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우회전 차량 보행자 사고 잦은 지역은 영광 버스터미널 부근

### 전국 25개 사고 다발지역 꼽혀

광주·전남지역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영광군 버스터미널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사고는 광주 440건, 전남 3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광주에서 7명이 숨지고 462명이 다쳤다. 전남에서는 11명이 숨지고 327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 142건, 서구 117건, 광산구

79건, 남구 53건, 동구 49건 순이었다.

특히 교통공단이 최근 3년 간 우회전 보행 교통 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한 결과, 영광군 영광읍 영광종합버스터미널 부근은 최근 3년 간 전국에서 우회전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25개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영광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는 이 기간 4건의 우회전 보행자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